

윤동주 십자가에 나타난 실존적 자기실현

An Existential Self-Actualization from Yoon Dong-Ju's "The Cross"

배지연 (Jiyeon Bae)*

Abstract

This study analysis in detail the deeper inner world based on sense and sensibility of the poet Yoon Dong-Ju in the work of <The Cross> to gain an insight reaching for the completion of self-actualization in the process of existential suffering. For this, three parts of collection were constructed from the first, the second and the third, and the fifth and the fourth among five verses and each theme in the three parts were focused on with a lens of existence. Three themes which are 'existential anxiety', 'existential despair,' 'existential self-actualization' were used for as a tool of interpretation of the poem.

The preceeding studies were focused on the poet's life with agony and resistance under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poet's noble spirit in his faithful belief regarding his sacrificial determination like Jesus. But this study tried to approach w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poet's inner being with the foundation of three polemic themes: the periodic darkness vs the personal agony; despair of the loss of the nation vs personal despair in the human finitude; the liberation of the nation vs self-actualization. The work of <The Cross> would be a beautiful-representation of prayer to bestow courage to all of us who want to seek self-actualization in his/her faith beyond the existential limitation of anxiety and despair and to resemble like the happy Jesus Christ.

Key Words : The Cross, existential anxiety, existential despair, existential self-actualization

* 실존힐링홈 대표(EH²: Existential Healing Home),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86,
lifelightlove67@yahoo.com

2017년 11월 03일 접수, 11월 30일 최종수정, 12월 11일 게재확정

I. 서론

짧은 <십자가> 시 한편은 한 인간의 심오한 실존적 자기완성에 대해 풍부하고도 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시인의 실존과 존재됨의 깊이와 무게는 시인의 27년 2개월의 삶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된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민족의 해방을 6개월을 앞두고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한 시인 윤동주는 <십자가>란 시어를 통해 자기 자신의 운명과 소명에 대해 신에게 기도하듯 대화를 시도한다.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명료한 한글로 기록된 <십자가>는 시인의 실존과 시대의 실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여주듯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괴로움을 벗어던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했던 시인의 시는 인문학적 인간이해를 강조하는 오늘날 다른 어떤 인문학서보다 풍부한 상상력과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윤동주는 <십자가>를 통해 고뇌의 가득 찬 자신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단순히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고뇌를 전달한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상황은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탄압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게 함으로써 한 개인의 실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 인간의 삶의 이야기는 세계내 존재(Being-in-the World)¹⁾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은 한 사람이 관계된 실존적 “세계가 한 개인이 존재하며 참여하는 의미 있는 관계의 구조이자 그/녀가 그 관계에

1) 개별화(혹은 self)와 세계는 인간 존재의 삶에 근거가 되는 대극성의 한 면이다. 인간의 실존은 이러한 대극(주관과 객관, 자유와 책임 등)이 반드시 존재한다. 실존치료는 존재론적 인간 이해에 대해 실존 철학의 창시자인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이데거, 현존재 분석자인 빈스방거(Binswanger)와 그의 제자 보스(Boss)의 계보를 잇는다. 특히 메이는 하이데거(Heidegger)의 세계내 존재의 개념을 자신의 임상에 적용하였다. 그는 하이데거의 세계내 존재 유형 모델 즉, 주변세계, 동료세계, 자기세계를 기초로 정신과 의사였던 빈스방거의 현존재분석(세계내존재를 모델로 한)에 영감을 얻어 자연과 동료와 자기세계에 대한 통합적인 차원에서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세 가지 관계의 통합적인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면서도 현대 심리학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심층적인 자기 세계에 대한 이해를 부각시켰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십자가>는 세계 내 존재자라는 렌즈로 볼 때 시인이 처한 조국의 현실 vs 타국에서의 삶 vs 자기 존재감에 대한 깊은 고뇌를 반영하는 기도문으로서 통합적이고도 깊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에 대한 보충자료로는 배지연(2013)의 “롤로 메이의 실존적 성격 심리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32-44를 참조하라.

참여함으로 형성된 삶의 모습임을 반증한다”고 메이는 말한다(May, 1994: 59). 이러한 관점에 근거할 때 <십자가>는 윤동주가 남겨놓은 한편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와 그가 속한 세계를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 ‘영원한 현존성’에 이르고자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짧은 생애를 통해 그는 끊임없이 자국의 주권과 영토상실에 대한 슬픔을 자기 상실로 내재화시키며, 그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 고통을 직면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러한 고투는 실존신학적인 관점에서 ‘영원한 현존’을 향한 실존적인 고통과 고뇌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실존적이고 존재론적 고뇌는 온전한 자기실현을 지향하는 역동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짧은 한편의 시로서 <십자가>는 단순한 미학적인 시어의 나열이 아니라 일종의 언어 행위(speech act)로서 독자들에게 두터운 해석(thick description)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와 같이 <십자가> 시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문헌보다 민족과 개인의 실존적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게 함으로써 본 논문의 의의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을 위하여 본 연구는 <십자가>에 나타난 시인의 실존적 불안과 절망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짧은 생애에서는 완결하지 못한 시인의 자기실현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실존적 불안

실존 치료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삶에서 불안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²⁾ 인간의 삶에 의미가 존재하는 한 불안은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불안은 과

2) 메이는 *불안의 의미*(1950)라는 제목으로 임상심리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불안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와 학제간의 연구를 시도하였다. 기존 철학 논문에서 메이의 ‘불안’ 이해는 매우 편협한 접근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김재철·송현아는 메이가 불안을 “대상적인 것과 연관되어” 설명한 것으로 국한 시킨다(2014: 242-243). 메이는 알루이나 프랭클과 같은 실존심리학자와 달리 불안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불안과 신경증적인 불안으로 나눈다. 정상적인 불안은 신경생리학적인 반응을 포함한 실존적 불안과 존재론적 불안이 이에 해당된다. 실존적 불안은 인간이 살면서 본능적 혹은 신경생리학적으로 느끼는 위협에 대한 반응이다. 가

괴적이든 건설적이든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찾으려 사는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³⁾ 실존 심리학자 메이에 의하면, 불안의 핵심은 무기력(helplessness)과 불확실성(uncertainty)이다(May, 1950: 205). 달리 말하면 상황에 대한 위협은 감지하지만 그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소진된 무기력한 상태와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 될지에 대하여 불확실한 것에 대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⁴⁾ 이와 같은 불안의 특징은 불안의 정서가 인간의 궁극적인 곤궁(ultimated predicament)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안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나 자유를 상실하고 의미를 상실했을 때와 같이 인간의 유한성과 궁극적인 문제는 결부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불안은 존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에 대한 손상과 상실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불안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메이는 불안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고 권면한다. 이 말은 불안은 그것을 인지하고 자각할 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말과 상응한다.⁵⁾ 여기서 불안은 신경증적인 불안이나 병리적인 불안과 구별되어야 한다. 신

장 쉬운 예로 신호등을 건너던 중 빨간 불이 켜지고 양쪽 도로에서 차가 달려올 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른다. 무사히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식은땀이 흐르고 명치끝이 아파오는 경험을 한다. 이것이 불안에 대한 기본적인 예이다. 그 외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포함한 국가의 재난상황이나 중요한 시험이나 인터뷰를 앞둔 상황 나아가 내일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인생의 무가치와 무의미로 인한 공허감 또한 불안의 범주에 속한다. 이처럼 불안의 범주는 매우 넓다. 위에서 ‘불안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상적인 범위에서 느끼는 실존적 존재론적 불안을 말한다.

3) 의미와 관련된 불안은 존재론적 불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메이에 따르면 인간의 핵심가치 상실은 곧 죽음에 비유할 수 있다. 여기서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기보다 존재론적인 유한성으로 인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의미한다. 이런 차원에서 메이의 불안이해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불안이해를 포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존재론적 불안 또한 정상적인 불안으로서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유한성과 유한한 존재로서 인생의 덧없음과 무의미와 공허 등에 대한 반응이다. 키에르케고르와 틸리히의 불안이해에 크게 영향을 받은 메이에 의하면 실존적이고 존재론적 불안은 불확실한 존재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죽음에 직면해야 하는 인간의 유한성(메이는 이것을 운명이라고도 함)을 자각하고 수용할 때 자유와 책임에 더욱 민감해지며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고 본다.

4) 메이는 미국에 실존심리학을 정착시킨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가 실존심리학에 집중했던 원인 중 하나는 자신의 실존적 존재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불안’을 주제로 콜롬비아 대학 임상 심리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동안 결핵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불안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된다. 특히 이때 케에르케고르의 불안개념을 접하면서 불안이해에 대한 한층 더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에 대해 시야를 넓히게 된다(May, 1950: 205-206).

5) 이것은 정상적인 불안에 대처하는 임상적인 처방이다. 비록 한 개인이 막연한 전쟁의 위협이나 경제

경증적인 불안은 스스로 감지하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이다. 실존적 혹은 존재론적 불안은 회피하거나 방어할 때 더 큰 불안의 위협으로 확장될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와 틸리히의 실존 사상으로부터 양향을 받은 메이는 불안에 대해 “인간 존재의 핵심 요소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빨리 인식할수록 더 나은 해결점을 찾게 된다고 말한다(May, 1950: 205). “불안은 언젠가 자기 자신도 죽어야 한다는 실존적 사실을 자기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 실재적인 체험이며 자기 이해에 대한 자원을 확보하는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배지연, 2015: 129). 이와 같은 불안은 인간의 유한성에 근거한 “자유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매개가 될 수 있다(키에르케고르, 2006: 148). 이상으로 언급한 불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인은 자신의 불안을 철저히 인지하고 수용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십자가’를 자신의 실존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십자가>에 나타난 시인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가 작성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윤동주는 1938년 3월에서 1941년 12월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약 33편의 시를 썼다. 그중에 <십자가>는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재학하던 1941년 5월 31일에 작성한 것이다. 그가 처음으로 쓴 시는 1934년 12월 24일에 쓴 <삶과 죽음>과 <초 한대>와 <내일은 없다>이다. <초 한대>는 기독교의 속죄양 의식을 나타내는 시로 해석될 수 있다. <초 한대>는 속죄양과 같이 자신의 죽을 운명을 예감하면서 시를 통해 그의 정신을 확장하고 심화시켜나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최명환, 2000: 45). 그가 쓴 마지막 시는 1942년 6월에 작성된 <봄>이다. 이시의 4연은 푸르른 하늘은 아른, 아른, 높기도 한데... 로 끝을 맺는다. 이것에 대해 권오만은 “그는 도달할 수 없는 ‘봄’을 한없이 그리워한 채, 이 세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삶과 시는 마치 누군가 짜 놓은 듯 신화적입니다. ‘봄’으로 자신의 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적인 어려움에 대한 불안을 느끼더라도 그것은 피상적인 현상일 뿐 그 수면 아래는 존재로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심오한 가치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메이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불안은 존재나 존재를 규명(identify with) 어떤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일어나는 기본 반응”이다(May, 1953: 40). 한마디로 불안은 존재감의 상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더 이상 현존에서 자기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일어난다(“would feel he/she no longer existed as a self”). May, 1953: 41). 따라서 어떤 형태의 불안이 일더라도 불안의 이유나 근거를 파악하면 훨씬 현실을 책임감 있게 건설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실존 치료의 임상적 차원에서 볼 때 불안을 회피하고 억압하면서 불안에 무감각하기 위해 쇼핑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쾌락에 몰입할 경우 불안은 신경증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몰입했던 것들에 중독이 될 수도 있다.

까지도” 기도와 같다고 말한다(권오만, 2015). 이처럼 그의 미완성 작품 <봄>과 그의 초기작품인 <삶과 죽음>은 <십자가>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듯하다.

<십자가>는 시인의 기도와 같은 삶의 행위가 시적 언어의 행위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는 모두 3문장과 5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 먼저 첫 번째 문장과 1연을 보고자 한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십자가와 교회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들이다. <십자가>를 제외한 다른 시작들(초한대, 태초의 아침, 또 태초의 아침, 무서운 시간, 서시 등)도 읽는 자들에 따라 예수의 고난과 희생정신을 담은 기독교적 색채가 강한 작품들로 볼 수 있다(이동근, 2010). 그러나 <십자가>는 읽는 자들의 시적 감각이나 신앙적 민감성 없이도 제목 자체에서 기독교적인 믿음의 깊이가 전달된다. 그가 선택한 많은 시어들 중에 <태초의 아침>이나 <팔복>과 그리고 <참회록> 등과 같이 신앙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단어들은 있지만 십자가는 너무나 명백한 성경적인 용어이며 기독교의 상징성을 지닌다. 그가 살던 동시대가 민족의 주권을 상실하고 반감지 않는 타자로부터 사상과 언어의 자율성에 대한 탄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십자가>란 제목의 시는 단순히 충성심이 가득 찬 신앙고백으로만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윤동주 시인의 시가 오늘날까지 많이 읽혀지고 연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의 시에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견뎌낸 그 어둠의 시대...폭력의 시대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깔고 있”으며 “시인의 마음 깊이 짙게 드리운 그 음영은 정결하기 짝이 없는 시인의 마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시를 읽는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류양선, 2012: 191).

시인의 시는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직면해야 하고 고뇌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직시하게 해준다. 시대적인 아픔과 부끄러움에 대한 내용은 다르지만 인간 실존은 인간에게 곤경 없는 삶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매일의 십자가를 져야하는 제자도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진리의 빛을 쫓고 있는 한 그 빛은 반드시 십자가를 비출 것이고 십자가 앞에 서서 고뇌하게 될 것이다. 시인 또한

십자가 앞에 서서 나라를 잃어버린 실존을 직시해야 했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고뇌와 방향은 그가 빛을 쫓고 있었고 빛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는 중에 그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햇빛이 걸린 십자가였던 것이다.

영원히 시간을 뚫고 들어와 고뇌에 찬 어떤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이 곧 그에게 십자가가 허락된 순간일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운동주라는 시인처럼 한없이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에게 영원히 세속의 시간을 깨뜨리고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이것은 마치 해바라기가 해에게서 햇빛을 끌어올 수 없고, 해가 해바라기에게 햇빛을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류양선, 2012: 187).

영원성의 시간과 해의 햇빛은 영원한 삶을 바라나 유한성에 머무는 즉시적 인간의 삶과 햇빛에 의존하는 식물의 필요충분조건관계를 인식시켜준다. 이것처럼 십자가에 걸린 햇빛은 시인에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실존적 한계와 영원한 구원을 간구하는 시인의 대극의 긴장을 반영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심재웅, 2010: 37). 또한 햇빛은 신앙의 태도, 신의 은총, 기독교 진리, 광명과 진리와 자유와 해방과 구원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심재웅, 2010: 37). 이와 같은 해석은 성경에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즉, 성경에서 ‘햇빛’의 발원은 빛이고 빛의 근원은 빛을 창조한 신이신 하나님임을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예로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인류의 빛” 이고 “이 빛이 어둠 속에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기록한다(현대인의 성경: 생명의 말씀사). 또한 요한복음 12장 36절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군중들이 “그리스도란 도대체 누구니까?”(요한복음 12장 34절)라고 묻는 말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맥락을 추론해볼 때 <십자가>에서 햇빛은 문자 그대로 햇빛인 동시에 햇빛을 창조한 하나님을 의미하며 나아가 인류에게 생명과 빛을 주기 위해 성육신한 그리스도 예수라고 볼 수 있다. 시인이 “쫓아오던 햇빛”은 앞의 성경 구절을 추론해볼 때 그리스도이다. 그렇다면 시와 함께 살다 시와 함께 죽고 시와 함께 현존하고 있는 운동주는 그가 사용한 시어를 통해서 암울한 중에서도 희망을 품고 새 아침이 도래할 것을 믿은 듯하다. 김인섭(2013: 94)은 그의 희망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에 대

해선 명확하게 알지 못했겠지만 그가 햇빛을 쫓으며 살아온 것이 확실해진 시점에서 그의 모든 진지한 고뇌는 희망을 품은 실존적인 고뇌였을 것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시작이 <봄>이었다는 것에서 잘 반증해 준다. 그의 진지하고 엄중한 시적 고백에서 그가 시대적인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더 밝게 환희 비치는 이른 새벽의 봄 햇살과 같은 생명의 환희를 교회당 꼭대기에서 보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시인 윤동주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십자가라는 무거운 역설을 품고 있는 단어를 시어로 선택하면서 기꺼이 그동안 자신이 햇빛을 쫓아왔다고 말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서시>에서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길 희망하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마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스스로 다독이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듯이 조재수(2005: 637-638)는 윤동주를 “젊은 날의 방황 고뇌, 절망, 슬픔, 참회, 동경”의 시를 쓰는 청년으로, “자기 성찰과 극복을 위한 독백”을 무수히 되뇌며 “부끄럽지 않는 삶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로 해석하고 있다. 시인이 <십자가>를 쓰기 3개월 전에 창작한 시가 <무서운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무서운 시간>과 <십자가>를 작성한 기간에 일어난 시인의 고뇌어린 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 이상섭(2004: 45)은 <무서운 시간>에서 윤동주가 “곧 죽을 자기를 무서운 지경으로 불러내어 괴롭히지 말라고, 정체 불명의 어떤 부르는 자 - “거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에게 직접 대답했다”고 지적한다. 이렇듯 ‘무서운 시간’에서 시인을 괴롭혔던 부름에 대해 시인은 3개월 후 <십자가>에서 아주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그가 그렇게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은 그렇게 죽을 것처럼 무섭고 어둡게 느껴지던 시간에 그가 본 것은 한 가닥의 빛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새롭게 그의 삶에 비취진 것이 아니라 이미 태중에서부터 쫓아왔던 빛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인정하고 바라보기까지 그는 <팔복>이나 <무서운 시간>과 같은 ‘운명론적인 불안’을 노래했어야만 했다. 시인은 1939년 9월에 <자화상>을 창작한 이후 1년여의 공백을 거쳐야 했고 그 이후 나온 첫 작품이 <팔복>이다. 이 시는 시인의 운명론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시인에게 <자화상>을 쓴 이후 신앙적 회의가 찾아왔고 그 시기는 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임수만, 2008: 118).

유한성을 가진 모든 인간을 사랑하며 살고자 조용히 맹세하는 시인은 자기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죽음을 떠올리는 시간은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의 신앙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낀 죽음에 대한 무서운 공포감은 실존적인 불안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존적 관점에서 그의 불안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⁶⁾

절대로 모든 것의 최후가 아니며, 죽음 또한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말해서 생명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 생명은 건강과 힘으로 충만해 있는 경우에 발견되기 보다는 그 죽음 가운데서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이다(키에르케고르, 2006: 161).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볼 때 죽음에 직면하여 고뇌에 빠진, 불안한 시인은 생명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경외심을 일으키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다. 한편으로 시인의 번민, 고통, 우수, 비탄 등의 실존적인 번뇌는 더욱더 죽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키에르케고르, 2006: 161). 여기서 죽음은 삶의 최종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보다 실존의 유한성을 넘어 영원한 자기를 향해 나아가는 열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불안은 죽음보다 더 괴로운 번민이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을 어떤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⁷⁾ 그것이 시인이 쫓던 햇빛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 햇빛은 시인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높은 교회의 첨탑에 있는 십자가를 비추고 있다. 여기서 시인의 불안은 절망을 암시해 준다. 털리히는 인간 존재는 궁극적으로 자신과 신과 소외된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고 하였다.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믿음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절망상태에 빠지게 된다. 절망은 인간의 가장 처참한

6) ‘십자가’ 앞에 서서 죽음에 대해 고뇌하는 시인의 입장은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죽음은 모든 것의 종국인 죽음이 아니라 무한성에 대한 갈망으로서 죽음, 죽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신앙, 옛 자아는 죽고 새 자아로 태어나는 바울의 관점, 절망의 밑바닥의 불신앙을 수용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존재로서의 삶에 대한 털리히 관점 등으로 조명해 볼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의 개념으로는 인간의 대극성 즉 유한성과 무한성, 필연성과 가능성의 종합체이자 변증법적 관계에서의 영원성에 참여하고자 죽을 수 없는 죽음을 선택할 귀로에 선 시인의 고뇌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죽음개념에 대해서는 그의 저서 불안의 개념 160-199을 참조하라.

7) 여기서 희망은 ‘십자가에 비친 햇빛’이라는 표현과 ‘조용히 피를 흘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연결시켜 볼 때 시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에 나타난 시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볼 때 이와 같은 희망을 품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밑바닥을 경험할 때 생기는 정서이다. ‘십자가’에 걸린 햇빛은 죽음과 생명의 대극 상태를 묘사하며 가장 극심한 불안과 긴장의 순간을 상징한다. 그러한 긴장을 견디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관계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분열의 바닥에는 절망이 숨어 있는 것이다. 시인은 지금 그러한 대극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Ⅲ. 실존적 절망

절망은 출구가 없는(No Exit)상황을 의미한다(Tillich, 1980: 56). 다른 말로 도망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서 거듭된 절망 속에 자포자기 상태를 의미한다. 절망은 불안의 한 유형으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실존이고 경계선(boundary-line)에 직면한 상황을 의미한다. 즉 희망이 없는 상태로서 벗어날 어떤 출구도 없고 나아갈 아무런 미래도 없는 상태이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 놓인 경계선을 넘어갈 출구가 없는 상태에서 남은 것은 절망이라는 감정(feeling)뿐인 것이다. 비록 절망의 감정은 비존재에 대한 절망이지만 이 절망의 고통이 너무나 강렬해서 비존재의 위협 중에도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 결국 비존재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인정함으로써 절망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탈출구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존재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오직 이 세 가지를 통합하는 전 인격적인 시도를 통해서만 탈출의 가능성은 열린다고 톨리히는 말한다(Tillich, 1980: 40-41, 54-57).

위에서 언급한 톨리히 관점에서 보면 시인에게 ‘십자가’는 출구인 동시에 출구가 되지 못 할 수 있다.⁸⁾ 그것은 그가 절망한 이유는 인간의 유한성을 벗어날 출구를 찾기 못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 유한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출구가 ‘십자가’에 오르는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 더욱 그는 절망을 한 듯 하다. 그 십자가는 궁극적인 경계로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달 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시인의 절망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그것은 그가 자신의 유한성의 한계를 자각한 것이고 둘째는 그가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기는 했지만 그 한계로

8) 십자가는 기독교적으로도 역설의 상징이듯 시인의 의식에 투영된 십자가도 역설적이고 대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인이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바라 본 대상은 십자가에 걸린 햇빛인데 그 햇빛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쫓아온 그 햇빛이 걸린 자리가 자신과 투쟁을 멈추게 해줄 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십자가로부터 찾아야만 했다. 달리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계속 빛을 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가 자신의 십자가로 허락되어야만 했다.

지금 그는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신의 몸으로 체화해야 하는 격이 다른 신앙적 위상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의 개인적인 실존이고 민족의 실존이었다. 그러나 그 길은 여전히 그에게서 까마득히 먼 길이고 도달하지 못할 목표 지점인 것이다. 그것은 그가 그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한계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을 벗어나려는 그는 조용한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자신이 완성된 존재로 되기 위해서 상호적인 합의를 통해 일치성을 이루어 가야만 했다.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것은 육체나 정신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새로운 존재로 부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힘 없는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자신이 과연 신의 본성을 가진 예수가 올랐던 그 높은 첨탑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는 기도이자 화자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여기서 강조된 부분은 첨탑이 높다든 것보다 그 높은 곳을 “어떻게” 오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다고 할 때의 “~ ㄴ 데라는 어미에는 시적 자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득한 거리감이 미묘하게 담겨” 있으며 햇빛이 머문 그 십자가는 “참으로 진리에 이르는 길”이나 시인의 능력으로 “열어 쫓히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길”인 것이다(류양선, 2012: 193). 지금까지 쫓아왔고 앞으로도 쫓아야 할 그 진리의 빛과 사랑의 빛이 비추는 곳이 십자가이다. 그리고 지금의 그의 실존적

운명이 교회당의 높은 첨탑에 있는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 곳을 올라 갈 수 있느냐가 그의 실존적 고뇌로 보아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십자가>를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지적하지 않는 그 지점이 바로 “어떻게” 부분이다. 이상섭과 최명환 등의 연구에서는 첨탑이 높다는 것만 부각시키면서 시인이 정작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놓고 서성거리며 고민하는 지에 대해 놓친 것이다(이상섭, 2004; 최명환, 2000). “지금” 시점에서 시인의 실존적 고민은 식민지국의 국민으로서 광복한 타자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과 호소와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과 민족의 실존적 한계를 이미 직시했고 실존을 수용하기 위해 죽음과도 같은 고통스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그 실존적 한계를 넘고 초월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다.

시인은 외부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릴까 아니면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까를 기다리며 십자가가 있는 교회당 주변을 서성거린다. 시인의 서성거림은 “순교자적 결단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의 정신적 패배”(채현주, 1991: 31)나 “교회 생활에서 소외된 자로” 보이나 “교회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자로서 “교회와 관계가 없는 양”(이상섭, 2004: 126) 보이려고 서성거린 것이 아니다. 시인이 “종소리”가 울리길 기다리며 “휘파람”을 분 것은 자신의 실존적 한계로 인한 절망(존재의 필연성)의 끝에서 신이 부르는 ‘소명’(존재의 가능성)이 십자가에 있는지에 대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다. 시인은 신이 부를 그 “소명”의 길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과도 같은 고난의 길임(“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을 이미 의식하였다. 그 십자가의 길이 결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진리의 빛을 향해 고독하지만 용기 있게 신의 존전으로 나아간 것이다. 그는 <십자가>를 창작하기에 앞서 한차례 강한 광풍과 같은 내적인 갈등을 겪었다. 지금은 궁극적인 관심에 대해 신과 단독자로서 대면하는 시점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인의 시작의 순서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시인이 <십자가>를 창작한 시점은 1941년 5월 31이고 죽음이 부르는 무서운 시간을 노래한 시점은 1941년 2월 7이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노래한 시점은 1941년 11월 20이라 해서 착안할 수 있다.

시인이 <십자가>를 노래한 것은 시인으로서 <쉽게 씌여진 시; 1942, 6,3>에서 처럼 “슬픈 천명”을 다함이라기보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 준비를 한 것이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자신을 준비한 것이다(전광하, 박용일, 2002: 22, 24;

류양선, 2012: 175). 그래서 시인의 서성거림은 시대적 고난에 대한 회피나 부인과 같은 자기방어적인 행위가 아니다. 또한 순교라는 신의 ‘부르심’을 미리 짐작하고 그 부르심에 앞도당한 자의 행위도 아니다. 오히려 그의 존재됨(becoming being)과 존재됨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시인은 나이가 20대 중반에 미치지 못한 젊은이지만 존재적인 성숙도는 연대적 나이와 무관하게 성숙한 성인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청년이었기에 더욱 명철하고 예리한 시선으로 시대와 자기 존재를 통찰할 수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십자가>를 쓰기 전 약 2 여 년 전 1939년에 쓴 『별똥 떨어지는 데』란 제목의 그의 수필을 보고자 한다.

밤이다.... 나는 이 어둠에서 잉태되고 이 어둠에서 성장하여서 아직도 이 어둠속에 그래도 생존 하나보다.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몰라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다만 나는 없는 듯 있는 하루살이처럼 허공에 부유하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의 대침에 또 하나 다른 밝음의 초점이 도사리고 있는 듯 생각한다. 덩석 움켜 쥐었으면 잡힐 듯도 하다.... 이것이 생생한 관념세계에만 머무른다면 애석한 일이다.... 이 밤도 과제를 풀지 못하여 안타까운 나의 마음에 나무의 마음이 점점 올라오는듯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량을 자량치 못함에 빠져리듯 하나 나의 젊은 선배의 웅변에 선배도 믿지 못할 것이라니 그러면 령리한 나무에게 나의 방향을 물어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동이 어디냐, 서가 어디냐, 남이 어디냐, 북이 어디냐, 아차! 저 별 이 번쩍 흐른다. 별똥 떨어진 데가 내가 갈 곳인가 보다. 하면 별똥 아! 꼭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져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 동이 어디냐, 서가 어디냐, 남이 어디냐, 북이 어디냐”며 시인은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시인이 이글을 쓴 때는 연희전문학교(1938, 4, 9)를 입학하고 1년이 지난 23살 무렵이다. 같은 해 5월에 시인은 학교 기숙사 생활을 정리하고 종로구에서 하숙생활을 하다가 일본형사의 감시를 피해 하숙집을 북아현동으로 옮긴다(전광하·박용일, 2002: 150). 시인의 피상적 실존은 일본 형사의 감시를 피하는 삶이었지만 궁극적인 실존은 인생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다. 그는 한 존재자로서 잉태와 성장과 실존이 “어둠”에 머물러서 새벽을 손님 기다리듯 기다리지만 그의 마음은 “암담”하다고 고백한다. 시상을 떠올리고 시를 창작하는 일은 “생생한 관념세계”에만 머무는 것이기에 새벽이 온다 해도 가야할 방향과 취해야 할 행동의 목표는 “암담”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암담한 마음은 그로부터 2여년이 지나서 <십자가>에서 “서성거림”으로 묘사된다. “서성거림”을 시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시적인 관념세계로부터 이미 벗어난 모습을 암시한다. 시인은 <별똥 떨어지는데>에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밤이 새도록 고민했다고 고백한다. 그는 실존을 놓고 번민하는 중에 “별이 번쩍” 흐르는 것을 보았고 그 별똥 지점을 놓치지 않고 쫓아오다가 그 빛이 침탑에 걸린 십자가를 비추는 것을 본 것이다.

시인은 오랫동안 어둠과 싸우면서 절망했다. 십자가를 목표로 둔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절망은 아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 선 그는 그 십자가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나에 대한 절망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절망이라기보다 현실성 속에 던져질 가능성을 기다리며 참아야 하는 절망감이다. 시인은 예수가 십자가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기도한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마태복음 26:39; 현대인의 성경). 예수는 세 번 반복해서 동일한 기도를 했고 기도하기 전에 “몹시 괴로워”(마태복음 26:37)하며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자신의 실존의 고통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 시인이 교회당 주변을 서성거리며 종소리를 기다리는 것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인류를 구원하는 대과업을 앞두고 괴로워하며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깨어”(마태복음 26:40) 있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궁극적인 관심에 직면하여 단독자 앞에 선 시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 무거운 무게를 타자에게 양보하거나 물려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기다림에 참여해주길 바라는 양가적인 감정 상태였을 것이다. 이런 시인의 실존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것이다.

전력을 다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오직 자기 혼자 힘으로만 절망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그때 그는 여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로서는 전력을 다해 노력한다고 해도, 노력하면 할수록 그만큼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 갈 뿐이다. 절망의 분열은 단순한 분열이 아니고, 그 자신과 관계하는 동시에 타인에 의해 조정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의 분열이다. 따라서 그것의, 그것만으로 독립되어있는 관계에 있어서의 분열을 동시에 이 관계를 조정한 힘에 대한 관계 속에서 무한히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절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경우의 자기 상태를 나타내는 정신은 자기 자신에 관계하고 자기 자신이고자 함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조정한 힘 가운데에 투명하게 근거를 두는 것이다(Kierkegaard, 2006: 164-165).

시인의 절망은 자신이 자기와 관계하는 관계성의 불완전함 혹은 분열로 인한 것이다. 나아가 그것을 해결하는 힘은 온전히 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데서

오는 절망이다(이상섭, 2004: 196). 그러나 그의 절망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의해 인간 예수가 죽음으로서 인간 예수는 원래의 영원성으로 귀속되고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는 메시아예로의 승화된 희망을 앞 둔 절망이다. 겟세마네에서 예수의 절망은 인간 예수 자신이 인간 자신과 단절과 분열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조정하는 힘,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성으로부터 놓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류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성으로 끌어올리는 데 인간 예수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에 대한 절망이다. 다행스럽게 시인은 자신이 자신과 관계에서 오는 소외⁹⁾를 극복하려는 자기와 관계하는 자기를 수용함으로써 겸허히 신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그가 또 다른 절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둠의 시대 속에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자 그 어둠이 결국 자신의 내적인 어둠임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시인은 희망을 찾아 절망을 벗어날 출구를 찾은 지금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인간은 절망한다(Kierkegaard, 2006). 왜냐하면 절망은 신이 인간과 관계하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신이 인간에게 손을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절망은 인간이 신과의 연합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증명한다. 시인은 지금 신과의 연합하는 동시에 자신과 온전한 자기 연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출구 없는 궁극적인 절망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향한 소리 없는 큰소리의 기도문으로 볼 수 있다.

IV. 실존적 자기실현

윤동주가 태어날 무렵 조국의 실존은 주권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에 반해 한 개인으로서 그의 삶은 매우 평화롭고 넉넉하며 여유로웠다. 그가 태어나서 소학교를 다녔던 명동초은 산과 바위 그리고 자연이 절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예비 시인으로서 꽃과

9) 틸리히는 인간의 실존적 죄의 결과로 소외를 초래한다고 말한다. 우리 인간의 소외(strangement)는 신과 자신과 타인과의 분리로 인한 결과이다. 그로 인해 초래한 불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다. 불안 해소의 방법으로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에 적응하려 시도하지만 그 시도는 더욱더 큰 인류의 분열을 불러일으킨다(Paul Tillich, 1984: 63-65).

나무 등의 자연과 깊은 교감을 하면서 시상을 떠올리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 속에 살았다. 윤동주는 성품이 좋고 교육적이며 재력을 갖추고 살아가던 증조부 윤재옥과 조부 윤하연 그리고 북경에서 유학을 하고 교편을 잡았던 부친 윤영석의 피를 물려받았다. 그의 외삼촌 김약연 목사 또한 명동 촌에 일찍이 이주하여 공동체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는 윤동주가 문과를 선택해서 부친과 갈등을 빚을 때 중재 역할을 해 주는 등 윤동주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명동학교의 교사 정재면에 의해 집안이 개종을 하게 되고 집안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에 교회회를 세움으로써 그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자연적으로 좋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모든 조건은 윤동주의 건강한 인성과 풍부한 지성 그리고 신실한 신앙심을 키우는데 의미 있게 작용했다. 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던져진 시인의 현존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신앙적으로 만족스러웠다. 시인의 시를 통해 본 그의 존재론적이고 심리적인 실존은 앞에서 추측한 것과는 사뭇 다른 듯하다.

조국의 독립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앞두고 독립에 기여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회복할 인재가 필요했던 시점에서 시인의 시야에 비친 현실은 냉혹했고 야비했다. 일본의 제재를 받고 있던 조선인으로서 조국을 떠나 중국에 살았고 그곳 또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손길이 뻗치고 있어서 시인의 마음은 결코 평화롭지만 않았던 것이다. 그의 이런 갈등은 <이런 날>에 잘 나타나 있다. “사이좋은 정문의 두 돌기둥 끝에서/오색기(만주제국의 국기)와 태양기(일본국기)가 춤을 춘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시인에 대해 김혁은 “수상스러운 시대를 조소하듯 시대의 고통을 명민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윤동주의 세계관이 엿보인다”고 기술한다(장백산, 2012: 6월호). 릿쿄 대학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하고 윤동주 업적을 20여년 이상 조사하고 발굴한 일본인 야나기하라 야스코는 윤동주 시를 통해 나타난 그의 사상에 대해 “외적인 권위나 한시대의 가치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느껴진다”고 술회한다(월간중앙, 2015년 8월). 시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에 나타난 그의 존재됨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했던 시점에 가장 원숙한 인품이 엿보인다.

시인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과 공감을 주고 민족 간의 화해의 표상으로 제시될 정도이지만 그가 남긴 글은 한편의 시집이 전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실존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부활을 꿈꾸는 그의 시어의 향연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적인 그의 원숙함, 사상의 보편적 가치, 풍부

한 서정성, 깊은 민족애와 인간애, 예리한 지성과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지닌 윤동주였지만 그가 신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는 의문과 고민에 빠진 한 인간이었다. “저렇게 높은 침탑에 있는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나요”라고 조용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시인은 신과 오랜 시간 단독자로 서왔고 <십자가>를 노래하는 지금도 고뇌하는 단독자로 신 앞에 서 있는 것이다.

피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은 <십자가>를 쓰면서 십자가의 독배를 마시기전 피로워 죽을 지경에 처하여 기도했던 예수를 떠올렸을 것이다. <십자가>를 창작하기 약 5개월 전에 <팔복>을 쓰면서 그는 또 한 번 팔복을 역설하던 예수를 떠올렸을 것이다. 시대를 통해 시인이 떠올린 예수는 “슬퍼하는 자”였고 그런 예수의 모습은 고스란히 자신의 마음에 투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간구하는 중에 예수와 동일시될 수 없는 한 실존자로서 절망을 느낀다. 그것은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절망자로서 예수가 갔던 십자가의 길을 자신도 갈 수 있느냐이다. 예수는 스스로 십자가를 졌지만 신 앞에 선 그는 신의 긍정을 기다려야만 했다. 신의 부정은 자신의 부정이고 그로 인한 신의 상실은 자기 상실을 의미한다. 신의 수용 없는 십자가는 자기 고난의 불과하지만 신의 수용을 통한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과 연합이다.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성 앞에서 절망을 하게 된 것이다.

자기에 대해 절망하는 것, 절망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절망의 공식인 것이다. 따라서 절망해서 자기 자신이기를 바라는 절망의 제2형태는, 절망해서 자기 자신이기를 바라지 않는 제1의 형태로 환원될 수가 있다. 소크라테스는 육체의 병이 육체를 먹어버리는 것과는 달리 ‘혼의 병(죄)은 혼을 먹어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데서 혼의 불사성을

증명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절망은 절망적인 자기를 먹어버릴 수 없다는 데서 그것이 곧 절망에 있어서의 모순의 고뇌라고 하는 데서 인간 속에 영원한 그 무엇이 존재함을 증명할 수도 있다. 인간 속에 아무런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면 인간은 결코 절망할 수 없었을 테고, 또 절망이 절망자인 자기를 먹어버릴 수 있었다고 하면, 절망이라는 것도 이미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키에르케고르 2006: 172).

시인의 절망은 식민지국의 국민으로서 주체성을 상실한 실패나 패배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최악에 조건에 처하더라도 그런 조건이 그를 삼켜서 그의 존재를 없애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이다. 즉 그는 지금 십자가에 걸린 햇빛이 자신을 영원으로 초대하는 빛임을 감지하였고 십자가가 그가 가야할 궁극적인 길임을 알았지만 지금 신이 자신을 그 자리에 초대할 것인지에 대해 절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의 절망은 자신이 자기의 실존적 한계를 벗어나도 여전히 자기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더욱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처럼”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서성거리며 신의 계시를 기다리던 그에게 십자가가 허락되었음을 확신한 것이다. “십자가가 ‘허락’되는 순간이란 영원이 세속의 시간을 뚫고 들어와 고뇌에 찬 시인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허락’의 순간에 괴로움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새로운 탄생”(이상섭, 2004: 203)은 <팔복>에서 강조되었던 슬픔이 이제 영원한 행복의 노래가 될 시점에 있다. 침탑 위의 십자가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던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떠올린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기 전까지 죽음의 고통을 느끼며 몹시 괴로워했던 예수, 죽음의 역설을 부활로 보여준 예수, 슬픔의 애통을 행복한 기쁨으로 승화시킨 예수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 “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꽃처럼.....피를...흘리겠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인생관이나 세계관의 문제보다 “바람과 구름과 나무와 우정”으로 인해 더 괴로워했다(윤동주, 1939: 127). 애써 시대의 어둠을 외면한 듯하지만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피를 흘리겠다는 말속에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본인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 희생을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만 해석한다면 그를 단지 독립투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노승욱, 2011: 92-93). 그

러나 그의 조용한 성품을 반영하는 “조용히”라는 부사의 사용은 십자가를 남들의 주목이나 영웅심의 발로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이 결코 아님을 보여준다. 그는 조용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적인 기도를 올린다. 조용하게 자신의 선택이나 결단을 내면에 담아두었지만 그것이 세상과 시대에 대해 결코 무관심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하늘은 땅위의 하늘이고 세상을 품고 있는 하늘이라는 점에서 하늘은 자신의 고향이자 조국이고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민족주의 파시즘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 그가 보고 살아가는 세상은 진리의 빛이 가려진 어두운 세상이고 지속적인 어둠에 덮여 있는 세상이다. 그는 세상을 향해 큰 소리 대신 고통스런 죽음을 택하여 조용한 외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이런 모습은 “역경의 고통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와 의 사귀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 된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은 분명히 영적인 기쁨으로 조절” 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태도이다(존 칼빈, 2006: 225, 228; 김창훈, 2006: 373-374).

이제 더 이상 시인에게서 십자가는 애통이나 고통이나 절망의 상징이 아니다. 시인은 십자가 앞에서 서성거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소리를 지르지 않고 조용히 어둠을 밝히는 꽃과 같은 붉은 등불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마친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위한 새로운 존재에 참여하고 있다. 그의 괴로움은 기쁨이 되고 “괴로웠던 사나이”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존적인 소외의 죽음을 극복한 자의 십자가”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실존적인 소외의 죽음에 종속시킨 자의 부활이다”이기 때문이다(폴 틸리히, 2005: 236). 시인은 절대자와 단독으로 대면하는 용기를 통해 신에 손에서 벗어난 자기를 발견하고 절망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소외된 관계를 극복한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행복을 얻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새로운 탄생은 죽음의 역설이듯이 꽃처럼 피어나려는 시인의 소망은 죽음의 역설을 내포한다. 시인은 자신의 고뇌에 예수의 괴로움을, 자신의 죽음에 예수의 죽음을, 그리

고 햇빛과 진리의 빛을, 피어나는 꽃과 부활을 서로 연결시킨다. 전자가 후자의 후광을 받아 그 자체의 실존을 초월할 가능성을 개방하고 후자는 전자로 말미암아 더 실존적인 감각으로 체현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꽃처럼 피어나는 피”는 ‘죽어가는 꽃’이 아니라 ‘피어나는 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을 함축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함이고 어둠과 거짓을 밝혀 줄 진리의 빛과 연합하는 죽음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 시인은 역설적으로 그는 거창한 세계관이나 인생관에 대해 고뇌하기보다 진리를 깨우치고 우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더 괴로워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역설을 내포한다. 본질과 실존에 대한 미해결 과제를 앞둔 시인의 시어는 상당한 역설적 내포할 뿐 아니라 유비 속에 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시인은 죽었으나 살았고 절망했으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완성된 자기의 다른 형태이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절대로 모든 것의 최후가 아니며, 죽음 또한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키에르케고르, 2006: 161) 시인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의 지혜를 전하며 인생의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게 해준다. 시인이 관념세계로부터 탈피했다는 것은 그의 “정신 활동” 즉 “정신과 육체”의 관계가 일치된 것을 의미한다. 즉, 외면적인 자기와 내현적인 자기가 합일을 이루는 자기성숙에 이른 것이다. 달리 말하면 죽음의 불안과 궁극적인 절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향한 영원한 현존과의 연합으로 새로운 생명에 참여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다. 시인이 죽어서 자기실현을 이루었다는 말은 시인은 몸은 죽었지만 그의 영과 정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윤동주는 1917년 만주의 북간도(현재 중국 연변자치주)의 명동 촌에서 태어나서 27년 2개월의 삶을 살다가 1945년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애를 마쳤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의 최후가 아니다. 그의 죽음은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안에 존재” 하며 이 생명은 “건강과 힘으로 충만해 있는 경우에 발견되기 보다는 그 죽음 가운데서 더 많이 발견“되는 것과 같다(Kierkegaard, 2006: 161).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자기실현에 이르는 하나의 표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인섭 (2013). 윤동주 시 평가의 재조명-성서수용과 신앙발달단계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8(3), 75-103.
- [Kim, I. S. (2013). On basis of faith development of relighting-the biblical acceptance about the poem of Yoon dong-ju. *The Journal of Faith and scholarship*, 18(3), 75-103.]
- 김재철 · 송현아 (2014). 불안에 대한 임상철학적 이해 - 하이데거와 보스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연구**, 제 50집, 230-261.
- [Kim, J. C., Song, H. A. (2014). A Study on Anxiety in the Clinical Philosophy. *Journal of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50, 230-261.]
- 김 혁 (2012). **장백산**. 룡정 윤동주 연구회, 6월호.
- [Kim, H. (2012). *Jang Back-San*. Study of Yungjung Yoon Dong-Ju, 6.]
- 김창훈 (2006).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 도서출판 솔로몬.
- [Kim, C. H. (2006). *The Biblical Essence and Biblical Core*. Seoul: Solomon Press.]
- 권오만 (2015). **윤동주와 걷는 새로운 길, 마지막회**. 기독교사회 2월호.
- [Gwon, O. M. (2015). *A new way walking with Yoon dong-ju*. The Journal of Christian Thought Feb.]
- 노승욱 (2011). 윤동주 시에 나타난 고백의 기독교적 성격 연구. **신앙과 학문**, 16(1), 83-102.
- [No, S. H. (2011). The study of characteristic of Christianity on the poetry of Yoon dong-ju. *The Journal of Faith and Scholarship*, 16(1), 83-102.]
- 류양선 (2012). 순교예의 소망: 십자가, **다시올 문학**, 18, 186-208.
- [Ryu, Y. S. (2012). Hope for martyrdom: the Cross. *Literature of Dasioll*, 18, 186-208.]
- 류양선 (2012). 윤동주의 시에 나타난 시간과 영원: 쉽게 씌어진 시 분석. **한국시학 연구**, 34(8), 157-183.
- [Ryu, Y. S. (2012). Time and eternity in the poetry of Yoon dong-ju: analysis of poem written easily. *The Study of Korean Poetry*, 34(8), 157-183.]
- 배지연 (2015). 실존적 자기 이해에 대한 메이와 틸리히의 변증법적 대화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0(3), 123-146.
- [Bae, J. Y. (2015). The dialectical dialogue between May and Tillich on an existential self-understanding. *The Journal of Faith and Scholarship*, 20(3), 123-146.]
- 배지연 (2013). **롤로 메이의 실존적 성격 심리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

- 대학교 대학원 기독교전문대학교.
- [Bae, J. Y. (2013). *A study on the existential psychology of personality of Rollo May*. Doctoral Dissertation. BaekSeok Graduate School, Seoul, Korea.]
- 심재웅 (2010). **윤동주 시에 나타난 기독교 정신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Sim, J. W. (2010). *A Study of The Thought of Christianity on Yoon don-Ju's Poetry*. Masters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Suwoon, Korea.]
- 이동근 (2010). **윤동주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십자가 표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서 대학원 조직신학.
- [Lee, D. K. (2010). *A Study on the poetry, "Cross" by Yun Dong Ju and Its implication to the Contemporary Christian Life*. Masters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Osan, Korea.)]
- 이명성 역. (2006).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병**, Kierkegaard, S.A. (1848). The concept of anxiety. 서울: 홍신문화사.
- [Lee, M. S. (2006). *The concept of anxiety: a simple psychologically orienting deliberation on the dogmatic issue of hereditary*. N.J.: Princeton.]
- 이상섭 (2004). 윤동주의 '순교적' 비전: '십자가' 깊이 읽기. **새국어 생활**, 14권 4호, 겨울, 125-133.
- [Lee, S. S. (2004). Yoon dong-ju's a martyr's vision: reading deeply the Cross. *New Life of Korean*, 14(4), 125-133]
- 이유식 (2009). 윤동주시 십자가 해석에 대한 이의. **월간문학**, 4월호.
- [Lee, Y. S. (2009). The meaning of interpretation on The Cross of Yoon dong-ju. *The Journal of Monthly Literature*, 4]
- 윤동주 (2002).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전광하·박용일 (편저). 흑룡강 조선출판사.
- [Yoon, D. J. (2002), *Sky, Wind, Star, and Poem*. Jun, K. H & Park, Y. I.(Eds.). WukYongKang Chosun Press.]
- 임수만 (2008). 윤동주 시의 실존적 양상: 절망과 불안, 그리고 존재에의 용기. **한국현대문학연구**, 24집 4월, 97-136.
- [Im, S. M. (2008). A study on the existential aspect of Yoon Dong-Ju(윤동주)'s poetry. *A Study of Korean Contemporary Literature*, 24(4), 98-136.]
- 조재수 (2005). **윤동주 시어 사전**. 연세 대학교 출판부.
- [Joe, J. S. (2005). *A Dictionary of Yoon Dong-Ju's Poetr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최현주 (1991). **윤동주 시에 나타난 기독교 정신**.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 [Choi, H. J. (1991). *A Study of The Thought of Christianity on Yoon don-Ju's Poetry*. Master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최명환 (2000). 윤동주의 십자가 분석. **국제어문**, 21집, 45-59.
- [Choi, M. W. (2000). A Analysis of Yoon dong-ju's the Cros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nguage and Literature*, 21, 45-59.]
- Calvin, J. (1988).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II.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 May, R. (1950). *The meaning of anxiety*. New York: Ronald Press Co.
- May, R. (1953). *Man's search for Himself*.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May, R., Angel, E. & Ellenberger, F. F. (ed). (1994). *Existence*. London: Jason Aronson Inc.
- Tillich, P., & LeFevre, P. (Eds). (1984). *The meaning of health: essays in existentialism, psychoanalysis, and religion*. Chicago: Exploration Press of The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 Tillich, P. (1980). *The Courage to Be*. New Haven: Yale University.

논문초록

윤동주 십자가에 나타난 실존적 자기실현

배지연 (실존힐링홈(EHF)²대표)

본 연구는 윤동주의 <십자가>시에 나타난 시인의 섬세한 내면세계를 밀도 있게 분석하여 그의 깊은 실존적 고뇌와 성숙한 자기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5연으로 된 시를 세 부분(1연, 2연과 3연, 4연과 5연)으로 구성하여 각 영역의 주제를 실존의 렌즈로 재조명하였다. <십자가>를 해석할 도구로 실존적 인간이해에 기초한로 ‘실존적 불안,’ ‘실존적 절망,’ ‘실존적 자기실현’이란 세 가지 개념을 활용하였다.

<십자가>에 대한 기존 자료는 대부분 일제 강점기에 조국을 상실한 시인의 고뇌와 저항적인 생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와 같은 희생적인 자기희생의 결의를 다짐하는 숭고한 신앙심을 강조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대적 암울과 개인의 고뇌; 민족상실에 대한 절망과 개인의 유한성에 대한 절망; 민족의 해방과 개인의 자기실현이라 포맷을 구조로 시인의 존재성에 대해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면서도 시인의 정신적 영적 인격적인 성숙을 시어를 통해 포착하고자 했다. <십자가>는 행복한 예수를 닮고자 십자가가 허락되기를 기다리는 한 존재의 진정성 있는 기도로써 불안과 절망을 넘어 자기실현에 이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표상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십자가, 실존적 불안, 실존적 절망, 실존적 자기실현